국내선 처음 완역된 빠알리어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 전서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816쪽 / 24만원

빠알리 '자타카' 경문, 주석들 나눠
3년간 번역…원고지로 2만 8176매
신화이자 문학인 부처님 전생이야기
세익스피어 등 세계 문학에도 영향
"지금 여기 실천 전범 전하는 경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타카〉(Jātaka)는 궁극적으로는 현세에서 부처님이 될 존재인 보살의 반복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전집으로 한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또는 본생담(本生談), 전생담(前生談) 또는 본연(本緣)이라고도 한다.

내용적으로 부처님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삶 가운데 전생에서 보살이었을 때에 구도생활을 서술한다. 이야기는 모두 547개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한한 겁 이전에 붓다가 쑤메다(Sumedha)라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과거의 부처님인 연등불 앞에서 끝없는 윤회로부터 해탈해, 스스로 부처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보살이 되기로 하나의 서원을 세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타카〉에 기초한 보살의 용맹정진은 마지막 삶에서 거룩한 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침을 남기고 수많은 뭇 삶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자타카〉에 담긴 547개의 이야기는 현세의 원인을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과적 원인을 밝혀 성찰하게 하는 부처님의 큰 뜻이 담긴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했던 〈자타카〉가 국내 최초로 완역된 전서로 출간돼 주목된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최근 빠알리 대장경 〈자타가〉 경문과 주석을 분리 복원 · 번역해 〈부처님 본생이야기- 자타카 전서〉를 펴냈다. 빠알리어 〈자타카〉가 국내에서 완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성 회장이 3년에 걸쳐 번역한 〈자타카〉는 원고지 분량만 28,176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총 2816쪽, 6,763개의 주석을 포함한다.

〈자타카〉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재성 회장은 "〈자타카〉는 초기불교 빠알리대장경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바라밀사상을 토대로 하는 보살사상을 천명하기 때문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경전"이라며 "대소승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의 예술적 창조성은 이 자타카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이 번역한 〈자타카 전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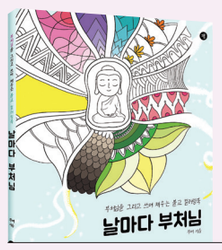
실제, 고대의 바르후트, 아잔타, 산치, 마투라, 간다라를 비롯한 스리랑카의 뽈론나루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탑묘와 동굴과 사원의 벽화를 장식한 것은 〈자타카〉의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자타카〉는 고고학적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자타카〉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판차탄트라 등의 인도문학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에도 양향을 끼쳤다. 〈자타카〉 속 일부 이야기들은 슈타인훼윌(Heinlich Steinhöwel, 1410~1479)의 이솝이야기에도 등장하며 이 이야기들의 이본들이나 개작본들은 복카치오(1313~1375), 뽀죠 브라촐리니(1380~1459), 라 퐁텐(1621~1695), 쵸서(1340~1400), 세익스피어(1564~1616)의 작품 속에서 발견된다는 게 전재성 회장의 설명이다.

전서의 발간을 도운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타카는 문학이며 전설이며 신화"라며 "어려운 가르침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에 이르고 새로운 결심으로 실천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통도사 람림학당 원장 혜능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자타카〉는 율장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현실의 난관에 직면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하며 지금 바로 여기의 삶 속에서 현실감 있게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전범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전"이라고 평가했다.

부처님과의 커피 한 잔 상상하며 여백 채워 볼까



'날마다 부처님'
무여 스님 지음
그봄출판사
1만 4800원

이 책에서는 장엄한 부처님이 없다
친숙함과 귀여움 갖춘 부처님 49점
하얀백지 위 부처님 채우는 것 독자 몫
단순한 컬러링책이 아닌 수행의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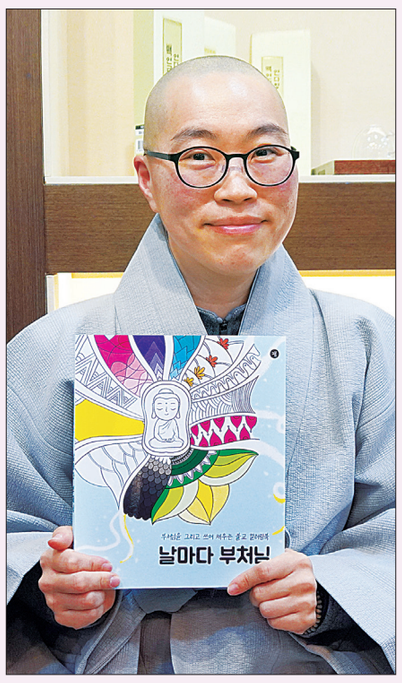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함박웃음과 함께 손가락 브이를 만든 부처님, 마법 융단을 타고 하늘을 날아 중생세계를 둘러보는 부처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즐기고 있는 부처님.

최근 무여 스님이 출간한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에는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엄한 부처님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친숙함에 귀여움까지 겸비한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 49점이 담겼다.

"제가 만난 부처님은 친절하고 자상하며, 자비로운 분입니다. 행복의 길을 먼저 가셨고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지요. 25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가르침이 전해져 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부처님〉은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부처님을 접하면 좋겠다는 저자 무여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부처님 미소를 그릴 때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스님은 부처님을 그리며 편안하고 환희로웠던 순간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얀 백지 위에 검은색 선으로만 표현된 부처님을 채워나가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독자들이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날마다 부처님 그림을 보고 그리면서 내 안의 부처님과 만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됐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이 담겼다.



최근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출간한 무여 스님이 자신의 책을 들고 웃고 있다.

"독자 마음 가는 대로 채워나가는 것이기에 샘플 같은 길라잡이 역시 없어요. 여백이 유난히 많은 것도 그때문이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사불), 쓰며 채우고(사경), 입으로 외운다면(염불) 신 · 구 · 의 삼업을 밝히는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무여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날마다 부처님〉은 단순한 컬러링책이 아닌 수행의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컬러링북을 펼치기 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하며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액자에 넣어 전시도 할 수있도록 제작했다.

그림 뒷면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비워두어도 좋고 나만의 부처님을 그리고 쓰며 채울 수 있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은 것은 이 컬러링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무여 스님은 2010년 양산 내원사로 출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월간 해인지에 '보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연재했다. 2016년 불교박람회 붓다아트페어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중 청년작가아트페어에 참여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개인전을 여는 등 작품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2014~2017년 도서출판 이층버스 북디자이너로 작업한 스님은 지난해 1인 출판사인 그봄 출판사를 창업, 대표와 디자이너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책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타인과 나누며 사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꿈꾼다"는 무여 스님은 "이번에 출간한 책 〈날마다 부처님〉은 내 안의 부처님과 함께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무형문화재 제9호 혜룡큰스님의
맥 전수 및 이수자 소리
영축 영남범음범패 불교대학

• 경전교수 : 도산월성
• 범패교수 : 보암창학, 정산청봉, 동암무상

수업기간 : 기초, 중급, 고등반 속성 6개월(60강).
연구반 특강(실용범패, 예법, 북, 역학, 경전) 강의.
이후 전문,연구반으로 편입 계속 수업을 받을수 있음.

• 개강일 : 2023년 3월 10일 오후 2시
• 장 소 :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통도소리 전수자 양산 불광사
영축 영남범음범패 불교대학
정산 석청봉(직,010-4848-0056번)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